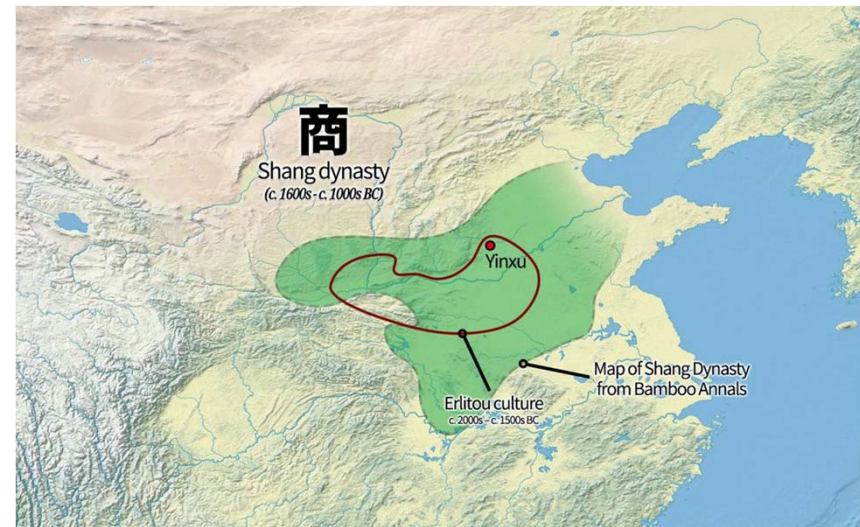


02. 원시~고대 초기의 동아시아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1. 상(商) · 주(周)의 정치와 사회

BC 17C	상(商)	상(商)의 건국	
BC 16C			
BC 15C			
BC 14C			
BC 13C			
BC 12C			
BC 11C	주(西周)	은주혁명(殷周革命)	BC 1046
BC 10C			
BC 09C			
BC 08C		웅적(戎狄)의 침입	BC 771
BC 07C	주(東周)	춘추(春秋) 시대	
BC 06C			
BC 05C		진(晉)의 삼분	BC 453
BC 04C		전국(戰國) 시대	
BC 03C		진(秦)의 통일	BC 221



1. 상(商) · 주(周)의 정치와 사회

· 상 왕조의 건립과 통치구조

: 「읍제국가」란?

→성읍국가, 소국(小國), chiefdom 등과 유사한 맥락의 용어로, 후대의 영역국가, 고대왕국, kingdom과 대비되어 사용됨

→일반적으로 성벽 등 테두리로 둘러싸인, 그 지배자가 한 눈에 그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크기인 경우가 많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읍제국가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합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부족연맹, 부족연합). 이럴 경우 그 연합의 지배자는 각 읍제국가의 chief들 사이에서 선출로 뽑히는 경우가 일반적임

→상 왕조 후기부터 이 읍제국가에서 고대왕국으로 이행하는 변화가 시작 되는데, 이런 고대 국가체제의 변화는 주(周) 및 춘추전국 시대, 그리고 진(秦) · 한(漢) 왕조 등을 거쳐 당(唐) 왕조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을 본다고 이해되고 있음

→이렇게 당 왕조에 완성되는 중국적 고대왕국 모델은, 그 주변에서 생존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던 인근 국가들에게 유일하고도 이상적인 국가체제로 간주되었고, 중국적 고대왕국 모델이 갖추었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현재에도 동아시아 각국에 상당히 남아 있음

1. 상(商) · 주(周)의 정치와 사회

· 상 왕조의 건립과 통치구조

: 「읍제국가」란? (계속)

→그러므로 중국의 고대왕국 모델을 이해하는 작업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상 왕조의 역사는 그 시작점

: 신정국가(=제정일치)와 청동기, 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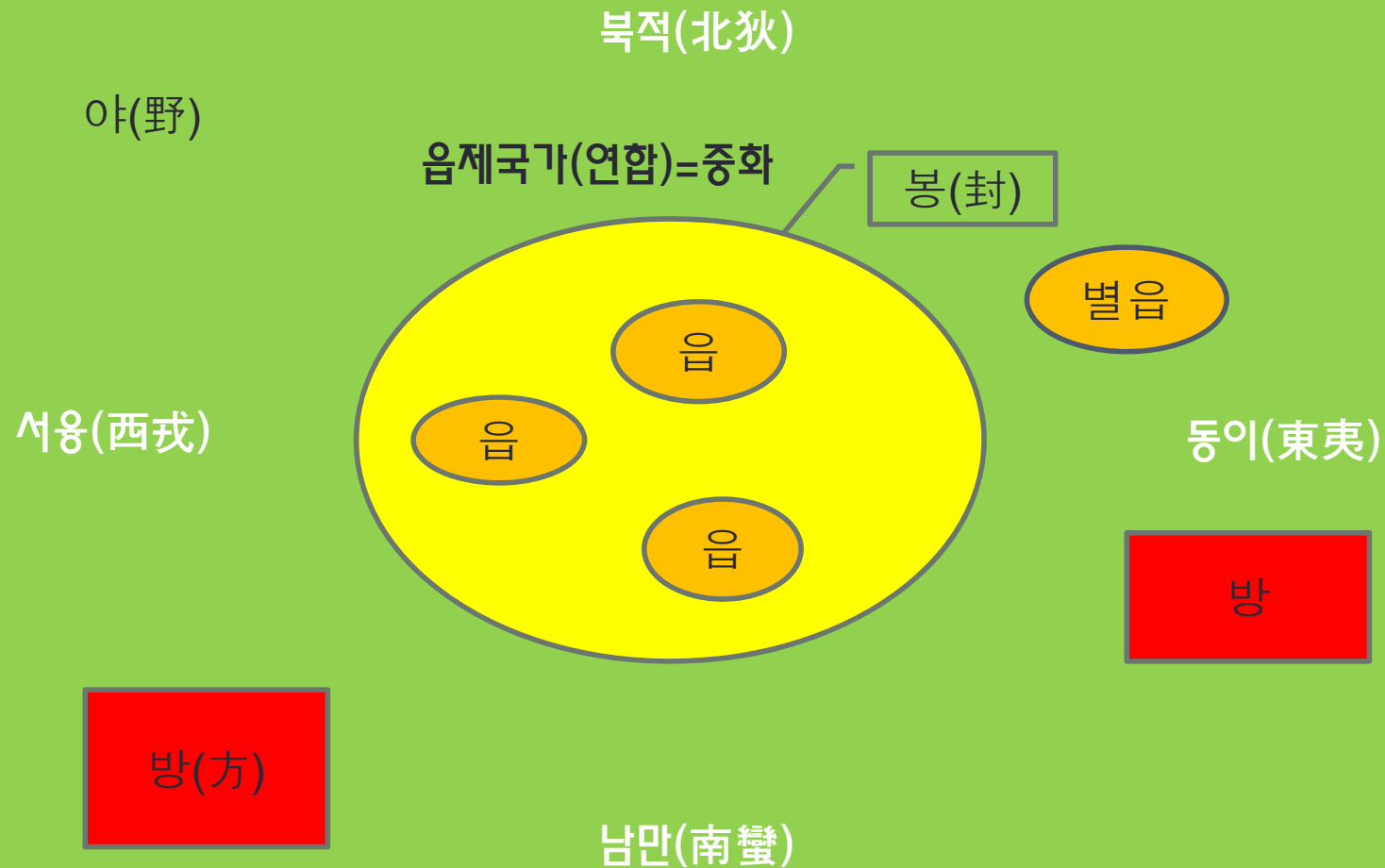
→후대의 왕조들의 지배에 비해 강한 종교적 색채

: 「봉건제」의 등장

→봉건제의 어원적 정의는 text p.33을 참조

1. 상(商) · 주(周)의 정치와 사회

참고: 상 왕조대의 세계인식(text p.33)



1. 상(商) · 주(周)의 정치와 사회

· 서주(西周)의 봉건체제

: 신 왕조 주(周)는 상 왕조 타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음

→ 자신들이 숭배하던 「천」(天)의 개념을 빌어 「천명(天命)」으로 설명

→ 후대 맹자에 의해 「역성혁명」사상으로 발전

→ 천명사상은 주 왕조 시대의 정치사상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
(그 구체적 사례는 p.36)

: 「종법제」(宗法制)란?

: 「정전제」(井田制)란?

2. 춘추(春秋) · 전국(戰國)시대의 사회변혁과 사상

· 춘추 · 전국시대의 사회변혁

: 춘추시대...주 왕조 하의 제후국들이 독립/상호경쟁

: 권위자로서의 주왕(周王)과 권력자로서의 패자(霸者)

: 「현」(縣)이란 지방행정 단위의 등장

→종래 봉건제 하에서의 소국을 대우하던 방식과의 차이

→「군현제」의 기원

: 치열해지는 국가간 생존경쟁이 초래한 정치적 변화들

→혈연에 의한 지배만큼이나 능력에 의한 지배가 중요시됨

→「하극상」의 등장(상급 귀족의 몰락과 하급귀족의 찬탈)

→전쟁 승리(=생존)를 위한 각종 제도들의 합리화 (토지/조세/병역제도 등)

→읍제국가의 붕괴와 영토국가의 출현 (간접적 지방지배→직접적 지방지배)

→전쟁의 장기화/대규모화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의 중시 (일종의 총력전)

→효율적 전쟁수행을 위한 군주권의 강화 (권력집중으로 명령체계 일원화)

: 군주에 의한 관료의 대거등용과 귀족세력의 약화 시도

2. 춘추(春秋) · 전국(戰國)시대의 사회변혁과 사상

· 춘추 · 전국시대의 사회변혁

: 치열해지는 국가간 생존경쟁이 초래한 정치적 변화들 (계속)

→「변법」(變法)의 시행(생존을 위한 기존 국가체제의 변혁)

: 균질한 피지배층(제민)의 창출과 중간 수탈자층의 배제

: 피지배층의 생활안정→국내지배 안정→왕권강화→국가의 생존

: 「변법」을 위한 이데올로기 제공집단으로서의 「제자백가」

: 농업생산력 상승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이 역시 국가생존의 토대)

→철제 농기구 사용, 우경, 각종 새로운 농법의 채용, 대규모 개간사업 등

·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주요 사상과 그 내용

: 구체적 내용은 생략함. 여기서는 현재에까지 이어지는 중국문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체적 골격이 이들의 사상으로 인해 태동되었다고 알아두는 정도로 충분함

3. 과제

Q. 읍제국가(연합)에서 고대왕국으로의 도약에 관하여

: text와 본 보조교재의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읍제국가(연합) 단계의 국가, 그리고 그 지배자들의 권력의 정도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들 연합의 지배자는 chief들 사이에서 선출된 일종의 「leader」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전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진(秦)~당(唐) 왕조기에 걸쳐 완성/발전해가는 고대왕국 시기의 지배자(황제)들은 일종의 「ruler」라 볼 수 있겠다. 본 텍스트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지만, 이 두 형태의 지배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정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후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후자로 발전한 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했을까? 배부된 text의 내용과 각자의 조사를 통해 A4 단면 1장 정도의 분량(다소 적거나 많아도 상관 없음)으로 대답하시오. 작성시에는 약간의 상상력을 활용한 추론도 허용되며, 가급적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 가능한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편이 보다 높은 평가가 주어질 것임.